

## 산란·육계업 소득표준율 인하건의

## '99소득표준율 0%로 조정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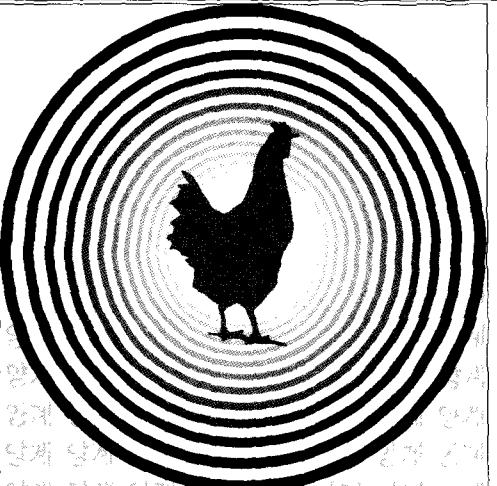
1999년도 우리나라 산란업과 육계업은 본회가 자체 조사 분석한 결과, 산란업은 외형에 의한 소득율이 -18.14%였고, 육계업도 -1.67%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국세청에 1999년도 산란업 및 육계업의 소득표준율을 0%로 인하조정하여 줄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번에 1999년도 양계산물 소득율과 관련하여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계란의 농장 평균 수취가격은 67.2 원이었고 생산비는 82.1원에 이르렀다.

또한 육계의 경우에도 농장 평균 수취가격은 1,120원, 생산비는 1,139원으로 나타나 양계농가의 적자 폭이 커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불법 삼계(백세미) 생산저지 촉구

## 건전한 종계업 육성 저해

본회는 지난 17일자로 농림부에 불법 삼계(일명 백세미) 생산저지 촉구 건의를 하였다. 일각에서 백세미를 이용한 삼계탕 등 식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백세미가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더라도 산업화를 위해 양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등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종계인들의 불법 삼계생산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사를 담아 건의를 낸 상태이다. 건의문에서 종계인들은 산란실용계를 모계로하여 생산할 경우 기존의 종계관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실용계 농장까지 오염시키고, 나아가 인근의 종계장까지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국제



# 양 계 업 계 뉴스 — 초 점

홍보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법 삼계생산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 기축의 알을 종관으로 개정하여 종계로부터 생산된 고품질의 병아리를 사육하여 육계농가의 소득보장과 종계인들의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건의도 함께 하였다.

### 축산물위생관리업무

#### 농림부에서 검역원으로 위임

농림부는 지난 7일자로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위임내지 위탁도록 하였다. 이번에 검역원으로 위임·위탁된 업무는 축산물의 가공·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를 비롯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및 검인용 색소에 관한 규격고시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수입축산물의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지정, 축산물에 대한 압류·폐기에 필요한 조치가 주요 골자이다.

### 육계 병아리 구매방법 변경

#### 계열업체 상·하한 4백·2백원으로

육계 계열화사업을 하는 계열주체들이 그간 개별적으로 일반 부화장을 통해 육용 실용계 병아리를 구매할 때 구입가격은 업체마다 특수성을 감안 결정하여 거래해 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한국계육협회 회원사를 주축으로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비를 300원으로 책정하여 상한가 400원, 하한가 200원으로하여 연간 계약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1월 12일 분과위원회 월례회에서 결정되어 향후 적용

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와 종계업체들은 이 보다 10%가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여서 개별 협상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 예측이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 '99 육용종계 품종별 입식현황

#### 로스, 아바에이카, 코브가 75% 차지

지난 1999년도에 입식된 육용종계는 총 3,526,240수로 이를 품종별로 분류해 보면 로스가 1,108,400수로 31.43%, 아바에이카가 857,000수로 24.3%, 코브가 649,700수로 18.42%, 에이비안이 541,600수로 15.36%를 차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입식량 중 국산은 3,358,800수로 95.25%였으며, 하바드 등 외국산은 4.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육용종계의 국내산 입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큰 변함이 없었다.

### 중국산 가금육 수입허용 검토

#### 업계 개별 포장 의무화 건의

농림부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중국산 가금육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이후 중국 정부의 수입 재개 요청이 잇따르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무진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등 해결점을 모색키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 허용 검토에 대해 육계업체는 물론 오리부문까지 수입은 재개 하되 개별포장을 의무화하여 국내에서 포장된 채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정부의 시책 방향에 대해 비슷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양계